

# '수영' 황선우, 아시아 최고 기록 세웠다

헬싱키 대회 이후 69년만에  
자유형 100m 출전 47초82



시상대 정복의 꿈은 3년 뒤로 미뤄지만 겁없는 10대'의 멋진 영역이었다. 한국 수영의 간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황선우(18·서울체고)가 올림픽 자유형 100m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황선우는 29일 일본 도쿄 아쿠아티스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82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전날 준결승에서 47초56의 새 아시아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한 황선우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당당히 겨룬 끝에 5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47초44로 동메달을 목에 건 3위 엘리멘트 롤레스니코프(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와 황선우의 격차는 0.38초였다.

남자 자유형 100m 5위는 1952년 헬싱키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스즈키 히로시(일본) 이후 69년 만에 나온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이다.

이 대회 직전까지 가장 최근 올림픽 자유형 100m 결승에 나선 아시아 선수는 1966년 멜버른 대회의 다니 아츠시(일본)로 성적은 7위였다.

서양 선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종목에서 만8세의 황선우는 경쟁력을 입증하며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6번 레인에서 경쟁에 입한 황선우는 8명 중 가장 빠른 0.58초의 출발 반응을 속도로 물속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황선우에게 여유



황선우가 29일 도쿄 아쿠아티스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남자 100m 자유형 결승에서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를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세계 최강자인 카일 드레셀(미국)은 일찌감치 1위로 치고 나가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황선우의 초반 50m 기록은 23초12

6위로 반환점을 돈 황선우는 남은 50m에서 모든 힘을 쏟아내면서 한 계단 상승한 5위로 경기를 마쳤다. 1위는 단거리의 황제 드레셀에게 돌아갔다.

드레셀은 47초02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카일 찰머스(호주)가 47초08로 뒤를 이었다. /뉴시스

'올림픽 2연패' 달성  
남자 사브르팀 금의환향

문 대통령 축전 "김정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선수들이 29일 올림픽 선수촌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김정환(38), 구본길(32·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오상욱(25·성남시청), 김준호(27·화성시청)가 이끄는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 28일 일본 지바의 마쿠하리 메세 B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에 45-26으로 완승을 거뒀다.

2012 런던올림픽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던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9년 만에 다시 왕좌에 올랐다. 종목 로테이션으로 인해 2016 리우 올림픽에서는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수들은 경기 종료 후 48시간 내 선수촌을 떠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이들에게 축전을 보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회 2연패의 쾌거이기에 더욱 뜻깊고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노력이 아깝지 않은 박수를 보내며 더 멋진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정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 것이다. 김정환 선수가 말형으로서 보여준 강인한 모습이 든든했다. 김 선수의 법과 노력에 아깝지 않은 박수를 보낸다.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하면서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구본길과 김준호, 오상욱도 축전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한 뒤 도쿄올림픽 선수촌을 떠났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뉴시스

## "한국 선수단 필승 기원"

###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정강선 전북체육회 회장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선수단의 필승을 기원하며 힘을 보탤다.

지난 25일 일본으로 출국한 정 회장은 현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자가격리)을 끝내자마자 태권도 선수들이 출전하는 각 종목 경기장을 잇따라 찾아가 응원하고 있다.

그는 종합성적 10위라는 한국 선수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열띤 응원을 보이고 있다.

29일 배드민턴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을 찾았다.

이날 경기장에서는 8강 여자복식과 16강 여자단식이 펼쳐졌고, 전북은행 소속 공희웅 선수와 전주 성심여고를 나온 신승찬 선수가 출전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여자 조별리그 3차전 핸드볼 경기가 열린 경기장(국립요요기경기장)도 찾았다.

정강선 회장은 "코로나19와 폭염, 태풍 등 악조건 속에서도 자랑스런 한국 선수들은 필승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한국 선수단 지원 부단장으로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전북 출신 또는 전북을 연고로 뛰고 있는 24명(선수 20명·임원 4명)이 출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 선수단 지원 부단장으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왼쪽)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가운데), 노순하 문경체육회장(오른쪽) 등과 한국 핸드볼 여자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다.

### 도쿄 패럴림픽 출전 태권도 선수 지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은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주정훈 선수 등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 후원 용품을 지원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최근 태권도원을 찾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태갑 전무이사와 주정훈 선수 등에게 태권도복과 미트 등 태권도 용품을 전달하며 패럴림픽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김태갑 전무이사는 "오영환 이사장은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 자로서 장애인 태권도 발전에 관심과 공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진흥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패럴림픽을 앞두고 주정훈 선수 등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용품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장애인 태권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IMSIL-GUN  
임실군

#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